

선진 기술로 세계 기상예보 역량 향상 돕는다

- 아시아 4개국 대상 '기상예보관 과정' 운영

- 1998년부터 국제 교육과정 운영... 현재까지 96개국 1,360여 명 수료

기상청(청장 유희동)은 몽골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필리핀 4개국 16명의 실무예보관 등을 대상으로 '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'을 5월 8일(월)부터 5월 19일(금)까지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2주간 운영한다.

주요 교육내용은 나라별 기상예보 현황 발표, 한국 기상예보 실무, 한국형 수치예보 소개 및 자료 분석 활용, 기상위성·레이더 자료 활용 등이다.

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(ODA¹) 사업의 하나로 1998년부터 아시아, 아프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.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은 총 96개국 1,360여 명에 이르며,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(WMO²)로부터 아시아 지역훈련기관(WMO RTC³)으로 지정되었다.

기상청장(유희동)은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예보 기술이 아시아 각국의 기상예보 역량 향상과 위험기상 조기 대응에 이바지하고 예보기술 공유국으로써 지속적 노력과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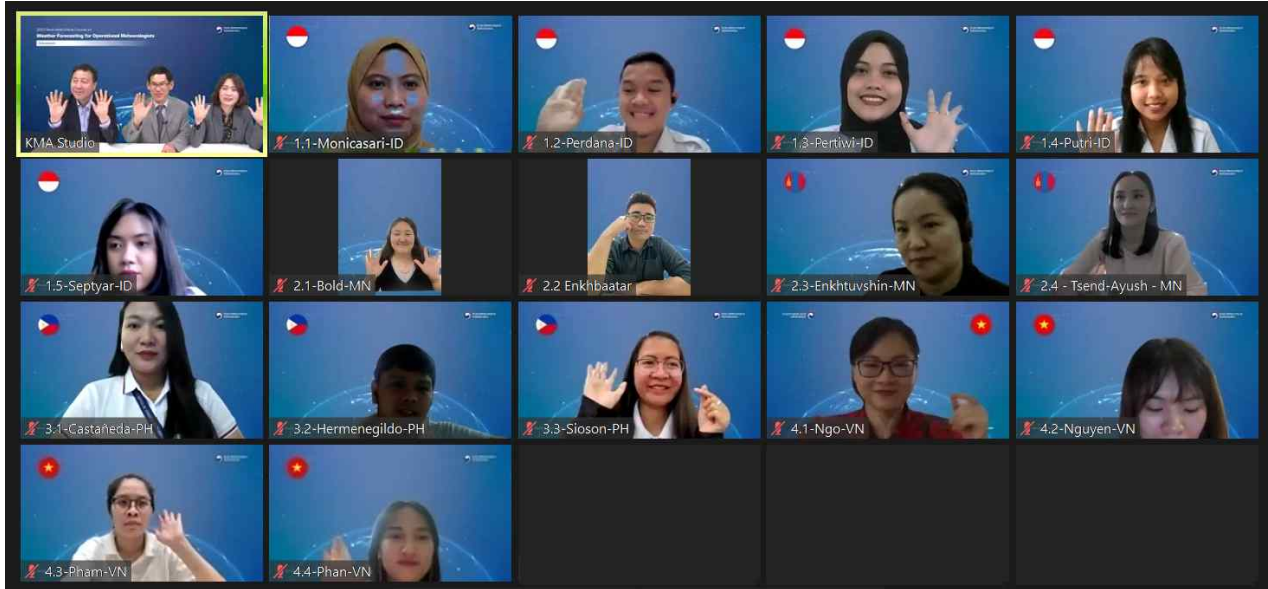
붙임 외국인 기상예보관 과정 입교식 사진

담당 부서	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경립 (02-2181-0031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숙 (02-2181-0033)

1)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(ODA)

2)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(WMO)

3) Regional Training Centre (RTC)



| 입교식 사진(실시간 온라인 진행) |